한 번쯤은, 하고도 안한 척 하고 싶지

글 **최은섭** | 한라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mrsrah@halla.ac.kr

1980년대 말 인기가 높았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가사에는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멋 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라는 대목이 있다. 얼핏 생각하면 현실 속에 그런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 싶지만, 만일 그런 여자가 존재한다면 대부분은 밥을 많이 먹고도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야 하고, 무스는 바르지 않아도 머릿결 보호에 전심을 다할 것이며, 티내지 않고도 멋이 날 수 있는 멋 내기 비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노래 속의 '그런 여자'는 속으로야 어떻든 겉으로는 이런 노력의 티가 나지 않는 여자라는 거였고, 당시 많은 여성들에게 의도치 않은 도전의식을 갖게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한 두 번은 하고도 안한 척, 한 듯 안한 듯 작은 허세를 부리곤 한다. 남들은 눈치 채지 못하지만 나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좀 더 그럴 듯하게 보이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인데, 이를 포착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장품 광고이다. "한 듯 안한 듯, 라네즈 슬라이딩팩트", "생얼의 비밀, 홀리카홀리카" 등이 그것이다. 대놓고 한 화장은 누가 봐도 내 얼굴의 결점을 의도적으로 가렸다는 티가 나지만, 한 듯 안한듯한 화장은 애정을 갖고 바라보면 살짝 속아 넘어가줄 수도 있는 귀여운 허세라는 점을 공략한 것이다.

또 다른 귀여운 허세 중에 하나는 요리솜씨이다. 전문가의 레시피나 조리법의 도움을 받았지만 하고도 안한 척,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그럴 듯한 밥상을 차리고 싶을 누군가를 위해 "내가 만든 집밥, 이마트 저스트 잇",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LG ThinQ 15분 퀵레시피" 등의 광고는 꽤나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이럴 땐 본격적으로 허세를 부려도 좋다고 속삭여주는 광고가 소개돼 눈길을 끈다. '롯데카드 로카'의 '결제나누기 카드' 광고인데, 구매시점에서는 일시불로 결제하더라도 대금 납부 시에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매 상황별 시리즈로 구성하여 방영하였다. 먼저 '슬기로운 사위생활' 편에서는 처가 식구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뒤 예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 사위가 "할부로 하면 없어 보이겠지? 체면이 있는데 역시 일시불로... 할부로 하면 좀 그런가?" 라는 갈등을 하다가 "이럴 땐 나만 아는 결제나누기 카드가 있잖아요... 일시불이요"로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사위들이라면 허세를 부려서라도 체면을 지키고 싶은 제 일 순위 대상이 바로 처가 식구들이라는 점을 위트 있게 표현한 광고라 하겠다.

롯데카드 로카 '사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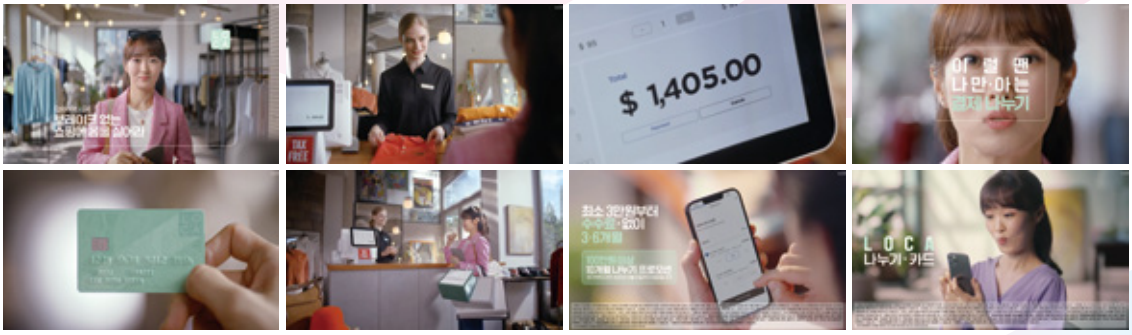
롯데카드 로카 '승진' 편

두 번째는 '승진의 무게를 견뎌라'편으로, 부장으로 승진한 축하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들이 "너 부장님 무시하냐? 부장님 소고기 시켜도 되죠?"라고 졸라대는데, 식사 값에 무너지기 싫은 자존심을 결제나누기 카드로 지켜낸다는 내용이다. 요즘은 직장 내 회식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승진축하라는 자리 앞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짠한 허세가 아닐까 싶다.

세 번째는 '원장님의 가위질에 자비란 없지'편이다. 미용실 거울 앞에서 머리 손질을 받는 여성이 이것저것 추가되는 비용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얼마냐고 물어볼까? 코팅은 뺄까? 아, 시작해 버렸어" 라며 낭패를 당하지만 결제나누기 카드로 모면을 한다는 내용이다. 아무리 물건 값을 잘 깎는 여성들이라도 좀처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머리손질 비용이란 점을 세심하게 파고든 광고이다.

네 번째 '브레이크 없는 쇼핑에 몸을 실어라' 편에서는 해외에서 엉겁결에 많은 물건을 구매하게 되지만 "몇 개 빼 주세요가 영어로 뭐더라...?"라며 망설이다가 결제나누기 카드로 실수를 만회한다는 내용이다. 어이없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했

롯데카드 로카 '미용실' 편



롯데카드 로카 '쇼핑' 편

* 자료출처 : www.tvcf.co.kr

을 법한 상황이란 점에서, 네 편의 광고 모두 이 카드의 서비스에 눈과 귀를 모으게 하는 공감의 힘이 있다.

작든 크든 허세와 체면치레는 마땅히 버리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늘 뜻밖의 변수가 존재하고 통제 곤란의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기에, 나만의 대처법 하나쯤 갖고 있자는 차원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작은 약점과 결핍에 움츠려 들거나 기죽기 보다는 작은 허세로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최은섭

한라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광고회사에서 15년간 카피라이터로 근무하며 <아모레 마몽드-산소같은 여자>, <유한킴벌리 화이트-깨끗함이 달라요> 등의 카피를 남겼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와 브랜드 관련 수업과 연구를 해왔다.